

정의화 “잘못된 법 고치려 다른 잘못해선 안돼”

여, 선진화법 개정 단독 착수...정 의장에 직권상정 요청
정의장, 여 쟁점법안 단독처리 시도에 “비정상 방법 안돼”
야 “일정 전면 보이콧”...정국 급랭속 개점휴업 장기화

새누리당이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을 단독으로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연초 정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법에 대해 ‘국회후진화법’, ‘망국법’이라며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를 사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더민주는 “여당이 국회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면 여야 협상과 국회 의사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1월 임시국회의 개점휴업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20대 총선 선거구 확정안과 주요 경제 관련 법안, 노동개혁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도 회기를 넘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관건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입장이다. 정 의장이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줘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성공하면 현재 정국의 여건이 달라진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안전 직권상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로 완화한 것이어서 쟁점 법안을 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총선 이전에 이들 법안의 입법에 협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국회법을 최대한 빨리 개정한 뒤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주요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단 정 의장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새

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요청하는 데 대해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인식하지만 이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식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 의장은 다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등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는 중”이라고 말한 뒤 “아직은 내가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와 개정안 상정을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충돌했다.

특히 전날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를 단독으로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킬

으로써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로 부결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제87조를 활용할 여건을 만든 사실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잘못 채워진 단추는 19대 국회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바로 채우는 것이 숙명”이라며 “운영위를 단독 소집하고 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작태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새누리당은 운영위의 폭기를 사과하고 본회의 부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독립법이자 국회자존법”이라며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운운하며 국회의 역할을 끝없이 축소해 미생물국회로 만들려는 정부·여당의 반의회주의적 도발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장흥·강진·영암 당원

6천명 ‘더민주’ 동반 탈당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안철수 의원 측 국민의당에 합류한 황주홍 의원의 지역구 지방의원과 당원 6000여명이 동반 탈당했다.

영암군의회의 이하남 의장, 전남도 의회 김광준(장흥)·곽영채(강진)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권 교체에 불을 지피고자 당을 떠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황 의원의 지역구인 장흥·강진·영암의 당원 6212명을 대표해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국민의 당과 함께 희망의 중도개혁정당, 중도의 정치가 아니라 평화의 정치를 꾸꾸겠다”고 선언했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의원 등 ‘더민주’ 탈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곽영채 전남도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광준 전남도의원(왼쪽), 이하남 영암군의회 의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함께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안철수 의원 측 국민의당에 합류한 황주홍 의원(오른쪽)의 지역구 지방의원과 당원 6천여 명이 동반 탈당했다.

/연합뉴스

부산 3선 조경태 ‘더민주’ 탈당...“새누리·국민의당 합류 고심”

‘야당의 무담’인 부산에서 3선 중진으로 성장한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이 19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특히, 조 의원은 새누리당 입당과 국민의당 합류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더민주의 친노·주류 세력과 끊임없이 충돌해 왔던 대표적 영남 비주류 의원이다.

조 의원은 이날 탈당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오늘부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다”며 “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고 탈당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28세 젊은 나이에 처음 출마하여 지역주의의 벽에 두 번 낙선하고 36세에 처음 당선된 이후 이 지역에서 내리 세 번 당선됐다”며 “지역주민과 당원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이 지지해주신 덕분에 소신 있고 당당한 정치를 해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가 서로 존중하며 정책으로 평가 받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탈당 후 진로와 관련해 새누리당 입당과 국민의당 입당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근 만나 메시지 교

환을 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도 만났다”며 “어떤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일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하면 4월 총선에서의 야권의 영남 공략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조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한다면 영남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것으로 관측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13 총선 현장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개선 사각지대 해소를”

이형석 광주 복구를 예비후보

이형석 광주시 복구를 예비후보는 19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인·아동 등 각종 복지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복지는 시혜가 아닌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우리 지



역에서부터 모든 복지자원을 활용해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복지 활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야권세력 통합의 길로 나서야”

고재경 순천·곡성 예비후보

고재경 순천·곡성 예비후보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백의종군 선언은 야권통합과 총선승리를 위한 통큰 결단”이라며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답변할 차례”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안 의원은 더 이상 호남을 야권분열의 전초기지로 만들어서 안 된다”며 “호남민심은 야권통합을 통한 총선승리와 민주정권 수복



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안 의원의 야권분열 행보는 민주정권 수복의 걸림돌이다.

호남민심은 그 어떤 변할 차례”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안 의원의 야권분열 행보는 민주정권 수복의 걸림돌이다. 호남민심은 그 어떤 변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朴대통령 “민생 입법 국민이 나서달라”

‘1000만 서명운동’ 참여 독려...국회 압박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경제단체 등이 주도하는 ‘민생 구하기 임박축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막론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수없이 국회에 호소했지만 국회는 계속해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위기가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과 청년들”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비례대표 선발 공개 오디션 검토

새누리당이 4·13 총선 비례대표 국회 의원 후보 공천을 공개 오디션을 통해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인재 영입이 아닌 인재 등용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직업과 연령, 사회적 배려 등 정치적 다양성을 보완할 다양한 계

층에서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뒤 이들의 출마 이유를 듣고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 평가단이 지원자의 노래를 듣고 가수로 선발하는 TV프로그램 ‘슈스케’(슈퍼스타 K)의 콘셉트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평가단은 30여명으로 구성되는 ‘국민공천심사원단’이 맡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씨는날 화, 목, 토, 일

불씨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

맛의향연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